

# 계묘년 희망의 타종소리 들으며 새해 기원

3년만의 재개 광주 '민주의 종' 타종행사 가보니

### 영하의 날씨에도 인파로 5·18민주광장 북새통 이주 노동자 “매일 행복하게 일하는 게 꿈이죠”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5·18민주광장은 '민주의 종' 울림을 들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광주시는 1일 자정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 민주의 종각 일대에서 '광주시민의 지혜로, 함께 여는 2023'을 슬로건으로 타종식을 열었다.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시교육장, 광주 각계의 시민대표 30명이 3개 조로 나눠 11번씩 총 33번 타종했다.

이번 타종식은 3년만에 열리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타종식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31일 밤 11시께부터 5·18민주광장에는 영하 2도의 추운 날씨에도 타종식을 보러 온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민들은 자정이 가까워오자 한 목소리로 2022년을 보내는 10초 카운트다운을 외쳤고, 이내 2023년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자 "대박" 탄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민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시민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가족, 친구,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민주의 종각을 배경으로 셀카를 연신 찍기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올해도 화이팅이다"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자정에 맞춰 어머니에게 전화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는 청년도, 종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연인도 모두 한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돌아본 지난 2022년 기억과 꿈꾸는 2023년 새해의 모습도 각각 각색이였다.

최다희(17·광주시 북구 중흥동·대광여고 1년)양은 부모와 동생 등 가족 4명과 함께 타종식을 보러 왔는데, 이날은 각오가 남달랐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엔 진학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최양은 "지난해에는 성적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바뀐 것,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 속상했던 일이 많았다"며 "새해에는 생각하는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성적이 원하는 만큼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혜련(여·52·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새로 맞은 사위와 함께 5·18민주광장을 찾아왔다. 노씨는 지난해 딸을 시집보내는 기쁨도 있었고, 전정부지로 솟은 물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사다난했다고 돌아봤다. 노씨는 "새해에는 모두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하면서, 즐거운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가장 먼저 오랫동안 공부해 온 요가 강사 자격증 꿈을 이루고, 또 차근차근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나설 것"이라며 웃었다.

지난해 2월 결혼해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터를 잡



2023년 첫날을 맞은 1일 새벽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민주의 종각에서 진행되는 타종식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은 홍수용(33)·오유진(여·31)씨 부부도 현장에서 종소리를 들으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홍씨는 "지난해는 결혼 준비 하라, 신혼집 구하라 유달리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해였다"며 "올해는 우리 부부가 신혼 이후 맞는 첫 새해인데, 하던 일도 잘 풀리고 행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향살이 중인 외국인들도 5·18민주광장을 찾아와 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다.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로 건축 가설물 제작 회사에서 일하는 나자르 사이드 아미로프(24)는 "친구한테 광장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다고 듣고 카자흐스탄 친구들을 모아 행사장에 왔

다"며 "친구들 모두 3년동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도 매일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꿈이다. 일단 직장동료 이프라 사예브(25)가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볼 것"이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 4년제 대학 수시 미등록 '전국 최고'

32.9% 달해

전남지역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 미등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방권 130개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미등록 인원은 3만3270명으로, 1년 전(3만2618명)보다 652명 늘었다.

반면 서울권 42개 대학의 수시 미등록자는 1396명으로, 전년(1800명)보다 404명 감소했다.

사·도별로 보면 수시 미등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2.9%), 제주(28.2%), 전북(24.8%)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가운데 수시 미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대구(5.9%), 대전(12.1%), 세종(15.7%)으로 나타났다.

수시 미등록 인원이 1년 전보다도 늘어 지방대가 신입생 모집에 겪는 어려움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 전체 정원 대비 미등록자 비율은 서울권 대학의 경우 3.0%에 그쳤으나 지방대에선

18.6%에 달했다.

수시 미등록자 비율은 1년 전인 2022학년도 당시 서울권 3.8%, 지방대 18.6%였다. 두 지역 격차가 14.8%포인트에서 15.6%포인트로 더 벌어진 것이다.

평균적으로 서울권 대학에선 1개 학교당 수시 미등록 인원이 43명에서 33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방대는 251명에서 25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수시 미등록자가 많을수록 정시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대를 노리는 성적대 수험생들이 보통 수시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수시 미등록 인원이 많은 지방 대학은 정시에서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입시업계 분석결과 2022학년도 대입 추가 모집 인원은 2만112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3.4%(1만9742명)가 지방 소재 대학에 쏠려 서울(1.9%), 수도권(4.6%)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고교 기숙사 내 휴대폰 사용 제한 중단해야”

광주교육청, 사립고 7곳에 권고

광주시교육청이 사립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자체 점검을 통해 지난 7월 광주시 소재 사립고교가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생활 규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 광주시교육청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

을 갖춘 사립고교 1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로 이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2개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숙사 내 휴대전화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7개 사립고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기 기자 hyunki@

##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선 둔다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올해부터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가 세계 지원을 해주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1일 밝혔다.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새롭게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지정 요건은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상한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따른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등이다.

1일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되면서 코스(그린피), 카트, 부대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표시가 의무화(홈페이지와 현장 등)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 외 임직원일동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도입**

자궁근종센터에서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증 치료

- 제 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진료 내용**

산부인과, 내과, 유방·갑상선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자궁근종센터,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